

07.13.2008 (주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빌 1:20)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빌 2:15). 음란할 ‘음’ 어지러울 ‘란’ 그래서 음탕하고 난잡한 성욕, 방탕한 성품 다 음란입니다. 무엇때문에 음란하게 보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변태입니다. 출 34:15 볼 때 가나안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쳐부셔야 됩니다. 무엇이 음란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호 5:4).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잡하고 난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죄가 없는 생명, 오직 기쁨과 평강과 안식으로 되어있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약 4:4).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 세상에 빠지는 것, 세상에 물드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째로, 간절함이 없는 것이 음란의 동기입니다. 음란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리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음란의 동기이며 말세의 현상이라고 딤후 3:1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등등이 다 음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 6:13 볼 때 하나님은 한가지를 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뜻으로 볼 때 그 몸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차별로 몸을 씁니다. 규모없게 살아갑니다. 레 11:44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마 6:22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 6:20 볼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엡 1:23). 그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3:6 볼 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남을 살려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몸과 성격과 마음에 바로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1 요 3:18 볼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기술과 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신비한 느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똑똑함으로도 되지 않고 무진장한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요 4:24에 나와 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말씀입니다. 마음도 드리지만 몸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상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몸 없이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과 망상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몸이 있어야 믿음을 실천합니다. 몸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9).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십니까? 내 몸을 전적으로 주의 일에 내어드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부분적으로 믿다가 드디어 담대해져서 온

전한 신앙을 가질 때는 점과 흥이 없어야 됩니다 (벧후 3:14, 살전 5:23, 벧전 5:10). 사단은 불평하게 합니다. 시험은 불평불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문입니다 (시 100:4). 감사하면 주께 영광이 됩니다 (시 50:23)!